

황금농장을 다녀와서



글 신승규
한우개량부 등록팀

전라북도에서 총체보리로 축산업과 경종농가의 고부가가치를 동시에 올리며 총체보리한우의 브랜드기반을 만들고 있는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의 중요지역이며 호남평야의 중심지로 호남지역의 주요 곡창지역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우를 개량하기 위하여 남다른 철저한 개체기록관리와 분석을 통한 일관경영으로 미래를 위한 한우개량에 도전하는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황금농장의 황금석 사장을 만났다.

"한우개량은 지속적인 개체관리와 기록에서만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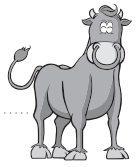
서울에서 27년간 지내오던 황금석 사장은 2002년 3월에 젊은 시절부터 꿈꾸며 준비한 축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귀농을 결심하였다. 농업전문고등학교

교을 나와서 축산학을 전공한 황사장은 지속적인 한우산업의 관심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귀농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귀농초기의 정착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처음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서 200평의 축사에 42두의 번식우로 한우산업에 뛰어들던 황금석 사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개량보다는 현실적인 소득에 의존하여 번식우



김제평야

황금농장 황금석 사장



황금농장 전경



번식우사 전경

□ 황금농장의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용도	평수	관리대상우	두수
A동	230평	송아지	40두
B동	230평		
C동	230평	육성우	30두
D동	230평		
E동	230평(입식준비중)	번식우	80두
퇴비사 및 창고	250평	거세우	20두
관리사	30평		
총 축사부지	4,100평	총 두수	170두

를 관리해 왔지만 現전북한우협동조합의 장성운 조합장의 안내와 지도로 한우개량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04년 6월에 현재의 황금농장으로 축사를 확대 신축하며 개량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있는 농장 경영관리를 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의 사양관리 경험과 개량관리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개체관리 및 사양관리를 높은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또한 세분화된 농장경영을 통하여 현실적인 현재의 소득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농장의 고소득을 위하여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개체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만 고능력번식우군을 조성합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체에 대한 모든 정보 및 기록을 스크랩을 통해 관리하고 특히 인공수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액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를 보관정리하며 분만사항에 대하여도 기록이 가능한 사항은 모두 기록을



철저한 개체기록 관리



개체별 맞춤식 사양관리



《총체보리한우의 브랜드 소개》

전북한우협동조합(장성운 조합장)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의 기술이전을 받아 청정 총체보리를 이용한 TMR배합사료를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여 6개의 총체보리한우 매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와 한우농가의 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있다. 매월 22일 월동경매시장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혈통송아지를 각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번식기반의 활성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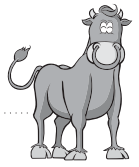
한다. 또한 기임암소에 대하여 생체단층촬영을 실시하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농장내 번식우군에 대해 선발?도태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소의 상태 및 발육상태,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과 조기치료를 통하여 폐사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농장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개체기록을 통하여 분만날짜를 예측하고 분만간격 및 분만난이도를 체크하여 유전전달력은 낮지만 실질적인 번식농가에게 필요한 분만에 대한 경제형질을 크게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분만 후에도 재발정의 간격 및 송아지에 대한 자료생성을 수집하여 번식우군을 고능력 번식우군으로 전환중이다. 이러한 개체관리를 통한 고능력 번식우군에서 생산되는 후대축들은 생시체중부터 개선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일관경영으로 전환하여 우량송아지를 통한 고급육도 기대한다고 한다.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환경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현부지로 축사를 이전하면



말끔하게 정돈된 축사주변



참고 및 퇴비사

□ 흥성농장의 사양관리

우 군	급여사료	급여량(1일당)
육성우	라이그라스	5.0kg
	생볏짚 (5월-11월)	무제한
	엔실리지 (12월-4월)	무제한
	농후사료	3.5kg
번식우	라이그라스	5.0kg
	생볏짚	무제한
	농후사료	3.0kg

서 우사설계시 가장 중점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 축사부지내 녹지 및 조경수 조성이었다고 한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 정돈된 축사부지에서는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농장 입구에서부터 황금석 사장의 세밀하고 꼼꼼한 농장경영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필자가 내려간 기간에는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였기 때문에 농장이 엉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주위환경이 말끔하였고 우방 또한 모든 소들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우방도 깨끗하였다. 황금석 사장은 이제는 소

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경영할 시기라며 한우산업은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꿈꾸던 한우를 만들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앞으로도 커다란 도약을 해야 할 시기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가격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며 한우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황금석 사장. 하지만 세부적인 경영방침을 세우고 개량에 의한 우수송아지를 생산하며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친환경축산을 실시한다면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한 한우산업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끊임없는 개체 관리로 자연스럽게 개량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농장의 경쟁력을 쌓고 있는 황금석 사장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개량에 대하여 앞으로 농장을 경영하던 초기단계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천천히 즐거운 마음으로 개량에 노력을 투자하여 행복한 축산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황금석 사장은 ‘우리에게 현재 한우산업의 현실은 마치 커다란 장벽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우산업에 필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의 농장 경영관리 개선 및 개량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의 투자라며 커다란 장벽을 우리 한우인의 힘으로 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순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웃음으로 즐거운 농장경영을 하는 황금석 사장에게 감사드리며 그 행복한 웃음이 지속되길 바란다.